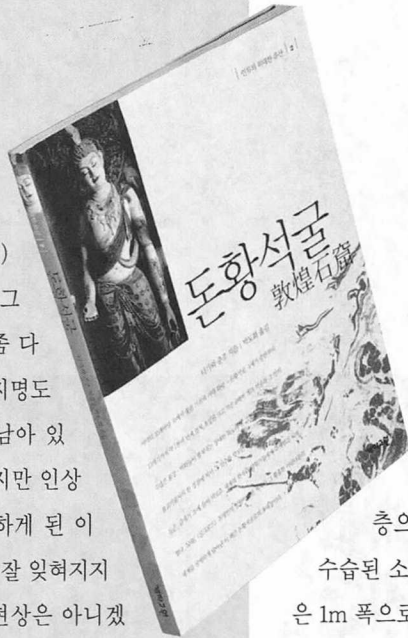


‘돈황’, 사막에 세워진 거대한 미술관

타가와 준조의 《돈황석굴》



박도화 옮김
개마고원/85변형/208면/12,000원

아직 한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라도, 나라안의 지명(地名)이 낯설 리는 없다. 그러나 이국의 땅은 좀 다르다. 자주 들어본 지명도 그리 기억에 오래 남아 있지 않기 일쑤다. 하지만 인상적인 책을 통해 접하게 된 이국의 역사나 지명은 잘 잊혀지지 않는다.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의 전형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그랬다. 무척 자주 듣는 도시인데도 정작 이병주의 <소설 알렉산드리아>를 읽고 나서야 살가운 동네 이름이 됐다. 돈황이야 말해 무엇하랴. 만약 윤후명의 <돈황의 사랑>을 읽지 않았다면, 저 멀리 고비사막 너머 돈황이라는 신비로운 마을이 있는지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돈황 안내서

돈황은 누구에게나 동경의 대상이었던 모양이다. 《돈황석굴》(박도화 옮김, 개마고원)을 지은 타가와 준조도 돈황에 가보길 오랫동안 열망했다고 한다. 마침내 그에게 기회가 왔다. 국내에도 방영된 적이 있는 NHK-TV의 다큐멘터리 <실크로드> 취재반의 일원이 된 것이다. 꿈에 그리던 돈황에 발을 디뎠을 때 지은이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는 익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막고굴이라고도 부르는 돈황석굴이 등지를 뜬 곳은 명사산(鳴沙山)이다. 사람이 그 산에 오르면 우는 듯한 소리가 나 붙여진 이름이란 다. 지은이는 명사산에 이르자 시인이 된 듯하다. 그러기에 명사산에서 ‘금빛이 빛나는 것’을 보고 석굴을 맨처음 열었다는 낙준에 대한 설명에 이르렀을 때 그토록 눈부신 상상력이 발휘되는 것 이리라.

명사산의 동북쪽 절벽에 여러 층으로 뚫린 막고굴은 492개에 이르고, 수습된 소상은 2천여 구이며, 벽화의 총면적은 1m 폭으로 늘어놓으면 45km에 이른다. 그렇다면 누가, 왜 1천년에 걸쳐 명사산에 막고굴을 팠을까. 지은이는 그 답을 일단 돈황석굴이 개굴된 시대배경에서 찾는다. 낙준이 명사산에 첫 굴을 팠을 때는 5호16국의 시대였다. 전란이 대륙을 휩쓸던 일대 혼란의 시기였던 것이다.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된 것은 마침 중국대륙에 들붙처럼 번져나가던 불교였다. 전쟁을 이끌던 영웅들은 “비참한 살육의 죄장소멸(罪障消滅)과 민중 교화”의 힘을, 온갖 시련을 맨주먹으로 견뎌야 했던 민중은 정신적 위안과 영혼의 구원을 불교에서 찾았던 것이다.

그러나 돈황석굴이 단지 종교적 염원이 담긴 성소라면, 지금의 명성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이 석굴에 세워진 소상과 그려진 벽화의 미술적 가치가 남다르기에 ‘불교미술의 보고’라는 칭송을 얻고 있는 것이다. 지은이가 이 책에서 가장 높이 평가한 석굴은 45굴과 321굴. 둘 다 당나라 때 세워진 굴로 그 뛰어난 예술적 기법에 찬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전하고 있는 것은 이 책의 미덕이다. 그렇다고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첫째는 이 책이 설명하는 석굴이 초기의 것과, 수당시대에 만들어진 것에 국한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돈황의 사랑>에는 혜초가 <왕오천축국전>을 쓴 곳이 바로 돈황이었고, 필사본이 발견된 곳이 돈황석굴이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책에는 그같은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다행

히 <돈황의 사랑>에서 비중있게 언급된 공무와 비천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다). 아마도 지은이가 일본인이어서 그랬던 모양인데, 국내 필자가 쓴 돈황연구서가 아쉬워지는 대목이다.

‘열렬한 신앙심’의 결정체

5년 전 울진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에 취재차 간 적이 있었다. 현장간부들과 잡담을 나누고 있는데, 누군가 고대건축과 오늘의 건축을 가르는 변별점이 무엇이나고 물었다. 현장소장은 자신있게 ‘경제성’이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도리질을 쳤다. 그것이 옳은 대답이라 여기지 않은 탓이다. 나는 속으로 그 답을 ‘구원의 문제’라고 되뇌었다. 고대의 건축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도술천에 이르는 길이라 여겼기에 그토록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돈황석굴》을 읽으면서 그때의 기억이 떠오른 까닭은 무엇일까. 아마 화공들이 모래바람과 싸우면서 불모의 땅에 거대한 미술관을 지었던 ‘동력’이 궁금한 탓이었을 것이다. 나는 다시, 그것은 구원의 문제라고, 답을 내렸다. 일찍이 돈황을 다녀간 스웨덴의 지질학자 스벤 헤딘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터무니 없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바친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의 힘에 대해 열렬한 신앙심을 안고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말한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느닷없이 떠오르는 물음이 하나 있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 이권우 기자